# 라오스 스님들, 사회 혁신운동 눈길

## 더마닐라타임즈, 승가 명상 및 윤리 교육 조명

### 1975년 이후 승가 역할 축소
### 위빠사나 명상, 불교 윤리 교육
### 공동체 운동에 중심 역할 소개


숲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라오스의 스님들. 사진출처=위키미디어

더 마닐라 타임즈(The Manila Times, 이하 마닐라타임즈)는 12월 13일 인터넷 뉴스를 통해 라오스 스님들의 환경운동 전개를 소개했다.

마닐라타임즈는 '라오스의 스님들이 친환경적인 발전을 도모하다'(Buddhist village monks in Laos initiate environmentally aware development)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환경을 의식한 라오스 스님들이 도덕교육과 명상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 경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운동을 주도하는 등 농촌의 조용한 혁명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닐라 타임즈에 따르면 이 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은 비엔티안 수도에서 남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캄모아네(Khammouane) 지방의 농북(Nongbok) 지역이다. 이 지역 스님들은 사일리(불교 윤리)와 좋은 삶을 누리는 길(생계보장), 그리고 환경보호를 교육하고 있다. 스님들은 지역민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생태와 복지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피탁 솜퐁 스님은 "마을 주민을 초대해 명상을 가르칩니다. 이는 어떤 활동을 하기 전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라며 "자신의 활동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다시 이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게 합니다"고 설명했다.

피탁 스님은 마을 풀뿌리 개발 프로젝트인 'Lao Buddhist Fellowship Organization(LBFO)'의 교육을 받은 스님 중 한명이다. 피탁 스님은 2013년 비엔티안에서 연수를 마친 후 마을로와 마을 주민들에게 위빠사나 명상을 가르치고 이와 함께 불교 윤리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

피탁 스님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불자들의 자원봉사도 강조한다. 마을 접근도로를 청소하고, 농사 퇴비와 비료를 함께 생산할 뿐만 아니라 유기농 원예를 도모하는 것 말이다.

이러한 활동은 라오스에서 스님들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에서는 1975년 라오스 건국된 후 스님들의 전통적인 역할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불교의 가치관은 라오스 사람들의 생활 방식, 전통 및 문화에 뿌리 내리고 있다.

마닐라 타임즈는 "라오스 스님들은 불법에 따라 불교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사람들의 영적 고통을 덜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 공동체의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사회적 조화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자비행을 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닐라 타임즈는 "의약품과 같은 현대사회의 물질적인 혜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라오스 승가에서 기존의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닐라 타임즈는 끝으로 "라오스 사람들이 고난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교적 관점에서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는 고난으로 간주된다"며 "환경의 악화는 고통의 한 이유이며,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숲을 보존하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올림픽 앞둔 日사찰, 신용카드 결재 도입

## 日정부의 도쿄올림픽 관광정책 보조 맞춘 결과


일본 사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도입됐다. 사진출처=The Japan Times

일본 사찰들이 2020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사찰 입장료 및 각종 사찰 내 결제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더 재팬 타임즈(The Japan Times)는 12월 7일 인터넷 뉴스 '일본의 관광산업은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용하고 있다'(Japan's tourism trade embraces portable credit card terminals)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 불교계의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 추세를 보도했다.

이 뉴스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20도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추가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률이 저조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신용카드 등 무현금 지불 비율을 10년간 현재 2배인 40%선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정책에 따라 와카야마현 고야산에 위치한 공고부지(金剛寺)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입장료를 신용카드 결제로 받기 시작했다.

더 재팬 타임즈는 "지금까지 일본 내 관광지는 신용카드를 받기 꺼려했다. 왜냐하면 소액결제의 경우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와 함께 금융앱 등을 활용한 결제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결과가 나오며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덕현 기자

# 허리케인 하비 피해자 사찰서 치료받았다

지난 8월 텍사스 주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자들이 한 사찰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라이언스로어'는 12월 13일 "633여 명의 피해자들이 휴스턴의 사찰에서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때 사찰서 피해자를 돌본 것은 사캬 케어재단, 해리스 건강 단체, 원격 진료단체였다. 이들은 텍사스 사원서 기본 의학적 진료와 더불어 치과, 안과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특히 사캬 케어재단은 부처님의 정신과 이상향에 입각해 불교의 정신에 충실한 단체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한 휴스턴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 예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됐지만 휴스턴 사원서 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캬 케어재단의 책임자인 캐서린은 "부처님의 가피로 많은 봉사자를 모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 中정부, 티베트 내 60명의 '生佛' 승인

## 달라이라마 영향 줄이기 나서


중국 정부가 티베스이 60명의 스님을 '생불'로 승인했다. 사진출처=buddhistdoor.net

중국정부가 티베트 내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12월 14일 '달라이라마의 영향력 감소를 위한 중국정부의 생불 정책'(Chinese choose 'Living Buddhas' to curb Dalai Lama influenc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에 대응하기 위해 티베트 내에 약 60여 명의 '생불'을 승인했다.

중국정부는 10년 전부터 티베트 내에 '생불' 선정 작업에 들어서 최근 국가종교행정부(SARA)가 60명의 생불에 대한 교육을 승인했다.

중국 종교위원장인 주 웨이 쿤(Zhu Weiqun)은 달라이 라마가 티벳 불교와 민족적 단결을 위한 활동을 위해 생불의 환생을 활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목표를 밝혔다.

주 웨이 쿤 위원장은 "일부 티베트 지역의 불교사원은 종종 자신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이른바 생불을 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불 지정은 티베트 불교에서 종파 지도자의 입적 후 이뤄진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16년 중국에서만도 1300명의 생불이 승인됐다. 특히 16세 이하의 7명의 생불이 공산당이 실행하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 훈련을 받고 있다 .

중국정부는 생불을 뽑기 위해 중국은 살아있는 붓다를 선출하고 승인하며 각 티베트 분파에 고위 당원을 포진시키고 있다.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중국불교협회는 승계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SARA에 보고를 한다. 이는 하나 이상의 생불이 한 종파에서 있을 때 주로 갈등이 발생한다. SARA는 친 중국정부 인사를 승인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中아시아 최고 높이 목탑 불타

## 명나라 목탑 영관루, 10일 소실



명나라 때 건립된 아시아 최고 높이 · 불교 목탑 영관루(靈官樓)가 10일 사찰 화재로 전체 소실됐다고 현지매체들이 보도했다.

12월 11일 중화권 매체 대기원시보(大紀元)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四川)성 미엔주(綿竹)시 구룡사(九龍寺)에서 갑자기 큰 불이 나 16층 높이 영관루 전체가 불탔다.

쓰촨성 당국자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불길이 모두 진압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다면서 화재 원인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영관루는 명나라 말기에 만들어진 300여년 된 목탑이다.2008년 쓰촨 대지진 당시 파손돼 약 20에이커(약 2만4000평) 면적에 대한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 화재 당시에는 인근 대웅전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 달라이라마 지지하던 美스타 타계

## 보카라 레젠데르, 12월 3일 암으로



미국 언론 'SF게이트'는 미국의 TV 진행자이자 사회주의 운동가던 보카라 레젠데르(Bokara Legendre · 사진)가 사망했다고 12월 13일 보도했다.

올해 나이 77세 였으며 사망일자는 12월 3일, 원인은 갑상선암으로 추정했다. 레젠데르는 남미에서 재벌가의 상속녀로 태어났지만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에 깊이 귀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회 운동을 진행하며 사회의 존경을 받기도 했다. 여러모로 사회에 귀감이 되던 그녀의 죽음에 일반 시민뿐 아니라 많은 불자들이 애도를 표했다.

평소 우아함을 잃지 않던 레젠데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빨간 드레스를 입고 80파운드에 이르는 목걸이를 한 채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시마

격조 높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안내문

1. 무속의 영점, 신점이 아닙니다.
2. 주역, 타로, 사주, 점성술 등의 역술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3. 순수하게 영적인 에너지만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는 기묘한 점술입니다.
4. 고도의 집중력과 강력한 에너지장을 떠올려서 보고 듣기에 적중률이 뛰어납니다.
5. 본인 점술의 최대 장점은 질문자가 물었을 때 두리뭉실하지 않고 깊이 있고 다양하며 상세하게 답변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 담 료 : 10분 이내 7만원, 20분 이내 14만원 .....
10분마다 7만원씩 분할결제 가능 (선불제)

상담가능시간 : 오후 1시 이후

연 락 처 : 010-9546-9797

시마(XIMA) 배상



황토와 편백



황토 편백 찜질침대 산사에 황토구들을 놓을 수는 없을까?
황토와 편백나무는 면역력 증강과 피부재생 및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잠이라도 푹 주무시고
참선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감기 없는 겨울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 현금 특별 판매가 : 135만원
구입처 010-7358-0380
배원호 합장

황토구들 침대